

대림 제1주일

아, 주님께서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대림 시기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곧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
그래서 대림 시기의 독서와 복음 말씀들은 주로
기다림과 준비라는 주제를 다룬다.

기다림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해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구원,
곧 하느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내리는 것이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오늘,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여
우리 가운데 머무시게 된 사건, 곧 주님 탄생 사건을
깨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짐하자.

아, 주님께서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이사 63,19)

이사야 예언자는 사람들이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하느님의 침묵 때문이라고 여기며
그분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창조물이니
성실하신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청한다.

“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땀을 거두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마르 15,37-38)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업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고자 하신 결과이다.

하느님께서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어 모두를 당신과 화해시키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1코린 1,8)

코린토 신자들은 은사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독서 내용 중)
서로 분열하고, 다투며, 싸움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문제(흠 잡을 데)를 일으키고 있었음.
바오로는 편지에서 코린토 신자들의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

“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1코린 1,9)

하느님은 당신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는 분이시기에
인간의 흠에도 불구하고 당신 약속을 이루는 분이시다.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하느님이 성실하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무작정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마르 13,35)

우리 스스로가 최악의 장막을 찢고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이기심과 자만의 장막을 찢고

이웃에게로 다가가지 않고, 여전히 가만히 앉아

주님께 당신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막을 찢어 달라고

청하고만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신다.

잠들지 말고 깨어서

하느님과 이웃을 외면하며 가려왔던 우리들의 장막을 찢으라고.